
설정 스님(가운데)을 비롯해 대만 세계불교비구니회 임원진과 조계종 총무원 소임자 스님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비구니스님들과 정진하고파”

대만 세계불교비구니회,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예방

대만 세계불교비구니회 스님들이 조계종을 예방해 함께 정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대만불교총회장 홍안 스님, 대만세계불교비구니회장 보휘 스님 등 대만불교 방문단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번 예방은 대만불교계가 오는 4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서 개최하는 제1회 세계불교비구니평화대회 대회에 설정 스님을 법사로 초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만불교총회 비서장 견인 스님은 “세계불교비구니평화대회 기간에 설정 스님이 직접 오셔서 전 세계 12개국이 참석하는 비구니 스님들에게 법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법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 수행자로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다. 견성성불을 이룰 때까지 함께 정진하자”고 화답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부처님 법을 중생에게 전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없이 수도하는 것은 수도하는 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성취가 늦어진다. 우리가 똑같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부처님 제자로서 여법하게 함께 살아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만세계불교비구니회장 보휘 스님은 “한국은 비구니회가 잘 갖춰진 것 같다. 조계종의 도움을 받아 한국 비구니스님들과 함께 정진하며 불제자로서 힘을 합쳐 나아가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명상’ 최초 민간자격증 도입

조계종 포교원 1월 29일 과정 등록, 4월 14일 고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이 종단 인증 민간자격증 발급에 나섰다. 다양해지는 자격증 시장에서 ‘불교’ 관련 자격증 발급으로 포교 효과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월 29일 ‘불교명상지도사’ 민간자격에 대한 주무부처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완료했다.

명상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구글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명상 검색 빈도는 불교 검색 빈도를 앞섰다. 명상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가운데 그동안 ‘불교명상’에 대한 정체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포교원의 ‘불교명상지도사’ 민간자격은 ‘불교명상’의 정체성을 밝히는 작업이란 의미도 지닌다.

불교명상지도사 과정은 불교의 대표적 명상법인 위빠사나, 사마타, 간화선 등 이론과 수행법을 익히고, 주요 현대 심리상담 이론과 기법도 함께 교육한다. 현재 진행 중인 타 명상교육과의 큰 차이점이다.

불교명상지도사 과정은 현재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급 과정은 총 17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는 불교명상지도사 1급 과정도 운영 예정에 있다.

불교명상지도사는 전문가, 1급, 2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1회 불교명상지도사 자격고시는 4월 14일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로 불교상담개발원 이메일(jabi7378@naver.com)이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 스님(불교상담개발원장)은 “소통과 치유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포교현장에서 심

명상 관심에 인증과정 도입
불교민간자격증 확대 일로
동기부여 효과, 활용처 모색

리치유적 명상을 통해 불자들의 실제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포교의 전문화와 명상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계종 포교원의 불교명상 민간자격증 발급과 함께 다양한 불교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전체 민간자격증의 경우 등록된 자격증 수가 2만8000여 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불교 관련 민간자격증은 2013년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상담심리사’를 등록한데 이어 2014년 불교상담아카데미의 ‘불교심리상담사’, 2015년 아카사의 ‘찬불가 지도사’, 한국불교상담학회의 ‘불교상담사’, 경기불교문화원의 ‘불교음악지도사’와 ‘불교문화지도사’, 2016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서 ‘불교심리상담사’, 2018년 포교원의 ‘불교상담심리사’ ‘불교명상지도사’, 조계종 삼보문화회의 ‘불교문화포교사’ 등이 있다.

또 명상과 관련해서는 자비명상(대표 마가)이 ‘방과후학교명상지도사’ ‘자비명상지도자’ ‘차명상지도사’를,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이 ‘명상심리상담사’, 풍경소리가 ‘명상심리상담사’, 불교상담아카데미가 ‘지명명상지도사’, 나마스테코리아가 ‘청소년 마음명상지도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청소년 명상힐링지도사’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2013년부터 민간자격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인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수강생들에게 동기부여에서 자격과정 도입의 효과가 크다”며 “불교 민간자격증 획득 시 이를 활용하는 부분도 불교계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신설된 불교상담심리사는 조계종 불교상담대학 또는 불교상담대학원 과정을 졸업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불교상담대학과 불교상담대학원은 3월 개강 예정으로 현재 신입생 모집 중이다. (02)737-7378


조계종이 인증하는 불교명상 최초 민간자격증이 도입됐다. 사진은 불교상담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제3기 불교명상지도사 2급 과정 명상교육.

전국비구니회 50년, 기념사업 추진

오는 9월 중 세미나 · 콘서트 · 시상식 등 예정

올해로 창립 50년을 맞은 전국비구니회가 세미나와 토크콘서트, 시상식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2월 6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서 제24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 결산보고와 2018년 예산 승인, 전국비구니회 50년 기념행사 심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운영위원회는 창립 5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미나와 토크콘서트, 시상식, 전시회 등의 사업을 준비하기로 결의했다. 기념식은 오는 9월 중 3일간 법룡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사업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와 함께 3월 열리는 전국비구니회 제11차 정기총회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외에 올해 교육사업으로 9월 7일부터 2박3일간 ‘불교에서 바라본 호스피스 교육’ 심화과정을 진행한다. 또한 교육과 복지, 포교 등 각 분야서 활동 중인 비구니 스님들을 활용하기 위한 비구니 인력 활용방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실시한다. 현재 비구니 스님들의 복지 증진을 돕고자 백천문화재단과 진행 중인 의료비 지원사업 규모는 현행 월 200만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1968년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전법도생을 목적으로 ‘비구니 우담바라회’로 발족했다. 1980년 전국비구니회로 재창립, 현재까지 전국에 지회를 두고 불법홍포와 자비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윤호섭 기자

총무원장선출, 입후보 없는 제3안 검토

제도개선특위 간담회서 추선(추대선출)제 논의

원로의원 등 총 130명 위원회
합숙 형태 대중공사로 선출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추대와 선출의 개념을 혼합한 제3의 안도 도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 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만당 스님이 제안한 가칭 ‘추선제’를 검토했다. 회의는 성원이 되지 않아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들 간의 의견만 주고받았다.

이날 만당 스님은 추대와 선출이 혼합된 방식인 ‘추선제’를 소개했다. 이 방식은 총무원장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군 명부를 총무부와 호법부가 작성, 중앙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자격심사 해 확정한다. 이후 중앙선관위가 추선위원회를 소집해 차기 총무원을 이끌 후임 총무원장을 선출해 추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선위원회는 원로의원 25인, 교구본사주지 24인, 중앙종회의원 81인을 합한 130명으로 구성되며, 합숙회의 장소에 들어간 뒤부터 외부 접촉이 금지되고 통신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총무원장 후보군에 들어간 스님들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만당 스님에 따르면 총무원장 입후보 방식을 없애 상대후보가 대립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만당 스님은 “추선제와 함께 총무원장 임기를 4년 중임제에서 6년 단임제로 바꾸면 소신 있는 종무집행도 가능해진다”며 “추선제는 선거제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선제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았다. 추선위원회가 정해져 있어 기득권이라는 오명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 추선위원회가 총의를 모으지 못했을 때 결국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은 부정적 의견으로 제기됐다.

이에 특위는 현행제도의 교구본사 선거인단 구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추선제를 다듬어 2가지 안을 함께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외부의 다양한 선출제도 안을 접수해 차기회의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차기회의는 2월 26일 열린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교육위원장 종호 스님 선출

2월 6일 1차 회의서



조계종 교육위원회 제12기 위원장에 동국대 불교대학장 종호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교육위원회는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종호 스님을 선출했다.

제12기 교육위원으로는 종호 스님을 비롯해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범해 스님, 조계종 前 교육부장 정도 스님, 해인율학승가대학원장 서봉 스님, 김천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등이 위촉됐다. 임기는 오는 2019년 12월 14일까지다.

신성민 기자

불교시문학(佛敎詩文學)
上 中 下 강의
활안스님의 『불교시문학 상 · 중 · 하』 출판을 계기로 불교시문학 강의를 계획하였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상권 : 십만송에 달하는 80권 화엄경 속 게송
■ 중권 : 경 · 율 · 론 · 밀교 편으로 불교 3장에 담겨있는 게송
■ 하권 :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불교에 전해오는 많은 불전(佛典) 가운데서 특히 오도송, 전법게, 임종게, 그리고 조사어록 등이 실려 있습니다.

강의내용 및 시간
■ 상권 (월 1회) : 매월 4째 토요일 오후 2시 ~ 4시 (3월 24일 개강) / 화엄경 게송 강의
■ 중권 (주 1회)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 (3월 5일 개강) / 아함경 ~
– 강사 : 활안 한정섭 스님
※ 불교시문학은 (사) 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각권 정가 5만원)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 문의 02)969-2410. 969-4981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8년 1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8년 3월 7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신중작법, 상단불공의식
◇원서교부 : 2018년 1월 15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